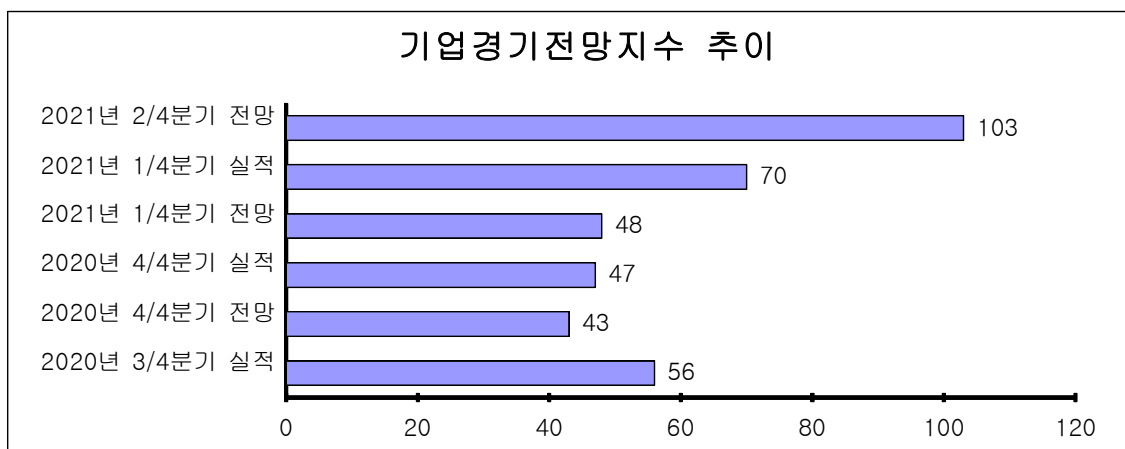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 査 結 果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회원조사과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1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 '55' 포인트 상승한 '130'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2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0년 3/4분기 실적	2020년 4/4분기 전망	2020년 4/4분기 실적	2021년 1/4분기 전망	2021년 1/4분기 실적	2021년 2/4분기 전망
체감경기	60	32	46	58	68	105
매출액	56	41	46	38	70	105
영업이익	52	36	38	35	59	95
자금조달 여건	72	41	39	40	68	110
설비투자	44	59	67	67	86	100
공급망 안정성	54	48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105, 매출액은 105, 영업이익 95, 설비투자 100, 자금조달 여건 110이다. 대체적으로 2021년 2/4분기 전망은 2021년 1/4분기 전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올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를 항목에 ‘기타(29.4%)’, ‘미중 무역갈등 포함한 보호무역주의(23.5%)’, ‘유가상승(17.6%)’, ‘신흥국 경기침체(14.7%)’, ‘환율변동성(14.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기타(29.4%)’ 사유로는 ‘코로나19’, ‘soc감소’, ‘경기침체’ 등을 사유로 꼽았다. 또한 대내 리스크로는 ‘코로나 재유행(51.4%)’,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18.9%)’, ‘가계부채 증가(13.5%)’, ‘기업부담법안 입법(10.8%)’, ‘반기업 정서(2.7%)’, ‘기타(2.7%)’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는 국내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졌음(54.5%)’, ‘선진국과 우리 기업 간 기술격차는’ 변화 없음(63.6%)’,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속도는’ 변화 없음(50.0%)’,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가’ ‘더 심화됐음(81.8%)’으로 집계되었다.

작년 한해 실적을 코로나 이전과의 비교를 묻는 항목에는 ‘줄었음(68.2%)’, ‘비슷한 수준(27.3%)’, ‘늘었음(4.5%)’로 대부분의 업체의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줄었음’에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소폭을 묻는 항목에서는 ‘-20%’부터 ‘-36.5%’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이 없음을 가정할 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시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66.7%)’, ‘올해 안(33.3%)’, ‘상반기 중(0%)’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년 이후에나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기간 : 2021. 02. 26 ~ 03. 11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지수=
$$[(\text{호전예상업체수}-\text{악화예상업체수}) \div \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